



연리지

나무와 인간의 상생

허달용 '연리지'展 광주롯데회관

한국화가 허달용씨가 광주롯데회관에서 '연리지(連理枝)'를 주제로 14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허씨는 이번 전시에서 소나무와 상록수 등을 형상화한 연리지 연작을 통해 공존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연리지는 '나무결이 이어진 가지'를 뜻하는 말로 결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캔버스에서 나무와 인간, 나무와 나무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대립과 갈등, 보수와 진보의 상생을 열연하고 있다.

광주민예총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중과 귀족적인 것을 비롯 전통과 현대 등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공존의 관계에 있음을 들려준다.

지난 1988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화가의 집합', '전국민족 미술전', '신나는 예술여행 나주 다섯마을 이야기'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062-221-18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제' 통할까?

외국인 감독 선임 비엔날레 업그레이드 모색 과도기적 체제...제도 정착 안전장치 갖춰야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외국인을 공동감독으로 선출하는 새로운 방안이 채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2006 광주비엔날레 평가회 및 토론회'.

2008 광주비엔날레가 사상 처음으로 내·외국인 공동감독제를 도입한다.

지난 95년 창설 이후 예술총감독이라는 명칭의 단일 감독제를 유지했으나 공동감독제를 도입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공동감독제는 외국인 감독 선출을 전제로 국내인사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보완적 성격이 짙는데다 국내와 감독 2명이 행사 전반에 공동책임을 지는 새로운 시도여서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1일 "비엔날레 이사회가 오는 2008년 열리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을 내·외국인 2명으로 하는 '공동예술감독 선임안'을 서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예술총감독 선정소위는 예술총감독 후보로 추천된 인사를 가운데 국내 2명, 해외 2명을 공동예술감독 후보로 압축한다. 이사회는 다음달 9일께 국내외 각 1명씩 공동예술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비엔날레가 공동감독제를 채택한 것은 광주비엔날레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중량급 있는 인사를 감독으로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에서도 감독을 배출할 때가 됐

다는 분위기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인사가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국내사정에 어두운 해외의 인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인사를 포함한 과도기적인 성격의 공동감독

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외국인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은 그동안 비엔날레의 해묵은 과제로 지적돼 왔던 해외 홍보, 인적 교류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엔날레가 외국인 감독은 물론

공동감독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욕적인 출발이 순탄치 않은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 등 내부적인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질적인 2명의 감독이 공동책임을 맡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 등을 조율할 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미술계의 한 인사는 "외국인에게 문화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공동 예술감독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소화할 만한 내부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연륜에 걸맞게 감독 선임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엔날레 이사회가 감독선임 방식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23일 예술총감독 후보추천을 마감한 뒤 돌연 서면결의를 통해 감독선임제를 변경한 것은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30대 중반의 조카가 C씨는 요즘 뜨고 있는 투잡스(two jobs)족이다. 본업은 조각가이고 부업은 공사판 인부다. 투잡스족이니 마땅히 수입도 두 배여야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수입이라고 해야 부업인 아파트 실내공사를 따라다니며 받는 일당이 전부 나다름이다.

이처럼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품을 만들어 봐야 사재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운이 좋아 1년에 2~3개 정도 팔린다 쳐도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민손이다.

그렇다고 그가 무능한 작가나냐면 전만이다. 실험적인 그의 작업은 이미 여러 공모전에서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알아주는 고객이 적은 탓에 살기가 팍팍하다. 지금까지는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조각이란 한 우물만 파고 있을 지는 자신이 안 산다.

2년 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린 조각가 구본주씨와 삼성화재 간의 소송은 예술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사례로 꼽힌다.

소송의 발단은 이렇다. 보험회사 측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구씨(당시 37세)에 대해 고인이 건물의 대형 상징물을 제작한 육체노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도시 일용노동자 노동에 준하고 정년도 60세로 낮춰 보험금을 소정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논쟁은 구씨에 대한 기대를 받았던 화려한 이력의 아티스트였더라도 무적이냐 다름없는 도시 일용노동자였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과 2년간에 걸친 지루한 소송은 보험회사 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최근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이 발표한 '문화분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이 같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예술인의 60%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일부는 도배나 집수리 등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래 이 지역 연극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홍도, 알고 보면 연극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모름지기 예술이 융성하고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삶과 예술의 최전선에서 '진부들 치러' 열정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예술을 공적 영역으로 인정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류처럼,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화실과 무대를 떠나 는 예술가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느끼는 '문화적 허기'도 그만큼 커진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작가회의, 제12기 문학아카데미

광주·전남민중문화작가회의(회장 박혜강·이하 작가회의)가 제12기 문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6일 개강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글쓰기와 논술 글쓰기 강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소설 분야의 초급반과 창작반은 그대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글쓰기는 3개월, 논술 글쓰기는 5개월, 문학은 7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각각 18만원, 30만원, 36만원이다. 각 강좌 별 수강인원은 10~20명. 수강생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작가회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작품집 발간, 문학기행 사회비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사로는 나희덕, 이화경, 영창권, 이승수, 고재중, 채희윤, 김형중씨 등이 나선다. 문의는 작가회의 홈페이지(http://kjmin-jak.or.kr) 또는 전화(062-524-7830)로 하면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武藝와 춤의 만남

14일 정이다인 무용단 무형 멜로 '비연의 혼3' 공연



정수씨가 무형의 사부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510-9253

광주 출신 무용가 이정수(정재만 남무단 회장)씨가 이끄는 정이다인 무용단이 무형 멜로 '비연의 혼3'을 무대에 올린다. 14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문화회관이 주최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초청된 '비연의 혼3'은 '무사' 등에 이어 정이다인 무용단이 다섯번째 선보이는 무형멜로 창작 무용극이다.

신라 진평왕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비연의 혼3'은 뛰어난 무사 무령과 그의 연인 비연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줄거리로 한 작품. 특히 칼을 사용하는 검무 등 다양한 무술과 부드러운 살풀이춤, 선비의 기상을 담은 선비춤 등 다양한 전통춤이 어우러져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 낸다.

주인공 무령과 비연 역으로 서성원, 박정선씨가 출연하며 연출과 안무 등을 맡은 이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 전통예술 '라쿠고'

13일 전남대 인문대학 강당



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동물일'과 부족한 돈으로 피를 내 우물을 사먹는 내용의 '시간 우동' 2편이다. 문의 062-530-3288.

일본 전통 예술 중 하나인 라쿠고(落語)가 광주에서 공연된다. 13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강당.

일본 전통 일인극인 '라쿠고'는 '라쿠고가'(라쿠고를 하는 사람)과 불리는 배우 1명이 기모노를 입고 무대의 방식 위에 앉아 들려주는 일인극으로 이야기의 의도적인 틀이나 허점을 뒤 관객을 웃게 만드는 예술이다.

어떤 무대 장치나 소도구 없이 오직 '말' 하나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장르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혼자 연기하는 배우의 입담과 언어력, 관객들의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제일 교보 3세로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쇼후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광공인중개사 (062)654-4520 (복문동 국제호텔 맞은편)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용동 한국병원 옆)

금보부동산컨설팅 (062)261-8949 (북구 우산A 문흥초등학교 맞은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삼구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매입할당 열)

전원주택지 분양 대행 (062)654-4520 (복문동 국제호텔 맞은편)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용동 한국병원 옆)

금보부동산컨설팅 (062)261-8949 (북구 우산A 문흥초등학교 맞은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삼구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매입할당 열)